

# 도내 학교시설 석면 제로화 '눈앞'

### 전체 학교시설 연면적 504만㎡ 중 석면 면적은 2375㎡로 석면 제거율 99.95%... 교육부 목표 2년 앞서

전북 지역 학교시설 석면 제로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학교시설 연면적 504만㎡ 중 석면 면적은 2375㎡(3개교)로 석면 제거율이 99.95%에 달한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2027학년도보다 2년 앞선 것으로, 2025학년도 겨울 방학이면 학교시설 석면 제로화가 달성된다. 특히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올해 교육시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홍일 시설과장은 2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시설 안전 점검, 공사현장 안전관리,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주요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 화재 발생 취약 공정에 대비한 화재감시자 배치 △작업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작업자 교육 △작업자 추락위험을 대비한 작업발판 및 추

락보호망 설치 △근로자 보호구 지급 등의 안전 규정을 철저히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해빙기·하절기·동절기 등 연 3회 교육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재해취약시설과 재난사고 발생 우려 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 외에도 교육시설의 안전인증 추진, 내진보강, 화재취약시설 개선(드라

이비트·샌드위치패널·스프링클러) 등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안홍일 시설과장은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학교시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정책

### 학교장 대상 설명회 열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원)장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현장 이해도와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5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안내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에 기반한 민원 대응 방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역할 등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강사단(23명)이 각 학교로 찾아가 교직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발간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교원용과 학부모용으로 개발한 교육활동보호 안내문을 적극 활용해 교육활동 보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온라인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 교육상 담실 구축, 교원안심번호, 투넛버 사용 지원 등은 지속된다. 특히 14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육보호위원회를 비롯해 특이민원 대응팀 설치, 중대교권침해 지원단 구축,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및 교권전담변호사 운영 등 행정적·재정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신설된 '교육활동 보호 회복조정지원단'은 전문가를 통한 회복 조정을 유도해 가·피해 당사자들의 상처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국제비칼로레아(IB) 프로그램 전문 교사 양성 과정인 IBEC(IB Educator Certificate) 전북 1기 45명과 IB FPD(IB Foundation Professional Development) 전북 1기 40명에게 이수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 도내 IB 수업 전문교사 85명 이수

### IBEC 전북 1기 45명·IB FPD 전북 1기 40명에 이수증 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 국제비칼로레아(IB) 프로그램 전문 교사 양성 과정인 IBEC(IB Educator Certificate) 전북 1기 45명과 IB FPD(IB Foundation Professional Development) 전북 1기 40명에게 이수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IBEC는 IB 본부에서 인증한 IB 수업

전문가 자격증과정이고, IB FPD는 IB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다. 두 가지 모두 IB 프로그램의 수업·평가 전문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교사의 운영 역량 및 교수·학습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IBEC 전북 1기 양성 과정은 남서울대학교와 한동대학교에 1년 비학위 위탁과정으로, IB FPD 전북 1기 과정은 인천 체트워 국제학교에서 6개월간 3차 세션으로 각각 진행됐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25년도 IBEC 과정을 남서울대학교와 한동대학교에 이어 전주교육대학교까지 확대해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IBEC과 IB FPD 과정을 통해 수업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현장에서 미래교육으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IB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전북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대학과 한동대학교에 1년 비학위 위탁과정으로, IB FPD 전북 1기 과정은 인천 체트워 국제학교에서 6개월간 3차 세션으로 각각 진행됐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25년도 IBEC 과정을 남서울대학교와 한동대학교에 이어 전주교육대학교까지 확대해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IBEC과 IB FPD 과정을 통해 수업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현장에서 미래교육으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IB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전북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학교 밖 공개수업' 전북미래학교 달라진다

### 전북교육청, '2025 전북미래학교 운영 계획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 전북미래학교 운영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전북미래학교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성과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미래학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미래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을 키우는 학교로, 4개의 필수 중점과제와 1개의 선택 과제를 운영한다. 중점과제로는 △기초·기본학력 기반 학력향상 △미래역량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심 수업혁신 △에듀테크 및 AI 코스웨어 기반 맞춤형 학습 등이고, 자율과제는 △IB 프로그램 △생태전환교육 △세계시민교육 △문제해결 교육 등이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업공개 활성화와 관련한 수업혁신을 위해 학교 밖 공개수업 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시간 학교장 인정 직무연수 시간 인정,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내실화를 위한 전 교원 30시간 관련연수 이수 등 새롭게 추진되는 도전적인 과제들도 소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미래학교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 활성화와 수업 공개 등을 통한 수업혁신에 앞장서는 전북교육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북미래학교의 우수한 교육사례들이 많이 발굴·확산돼 전북교육이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분야 발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 우석대, 더베이글 그룹과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20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주)더베이글 그룹(대표이사 김형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전했다. 파트너십 체결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김형태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증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뿐만 아니라, 우석대학교의 연구 인프라와 (주)더베이글 그룹의 제품 개발 역량을 결합해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상호 협력해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시장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노준 총장은 "건강기능식품 산업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20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주)더베이글 그룹(대표이사 김형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전했다. 파트너십 체결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김형태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증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뿐만 아니라, 우석대학교의 연구 인프라와 (주)더베이글 그룹의 제품 개발 역량을 결합해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상호 협력해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시장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노준 총장은 "건강기능식품 산업

의 혁신적인 연구와 제품 개발을 목표로 상호 협력할 예정"이라며 "이번 파트너십이 양 기관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태 대표이사는 "우석대학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양 기관의 협력이 상호 발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탄소투브로 촉매 성능 극대화 '주목'

### 전북대 나라안 가이왈리 박사과정생, 美 화학저널 표지 장식



전북대학교 나라안 가이왈리(Narayan Gaiwali, 지도교수 한재량, 화학과) 박사과정생이 세계적 권위의 미국 화학회 학술지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나라안 가이왈리 박사과정생은 최근 탄소투브 내부에 반도체 산화물을 고립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 이를 이용한 촉매 구조가 가시광선 아래에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탄소 투브와 반도체 산화물 간의 강력한 계면 결합이 촉매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경제적이며 구하기 쉬운 산화구리를 활용해 높은 경제적 효율성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내용을 담은 논문이 미국 탄소미국화학회(ACS)가 발간하는 저명 국제학술지인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Research'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돼 3월 12일자 오프라인판에 게재될 것이다. 특히 논문 심사 과정에서 세 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연구의 독창성과 우수성에 대한 극찬을 받았으며, 학술지 편집장의 적극 추천과 표지논문 선정위원회의 엄중한 심사를 거쳐 표지논문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재량 지도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촉매 개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권 확대

### 전북교육청, 학교 연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주기 위해 학교연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교육과정에 편제돼 있으나 학생 수요 부족 등으로 개설되지 않은 과목에 대해 학교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수업을 개설하는 교육과정이다. 양현고등학교를 비롯해 34개교에서 운영되는 1학기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에는 생명과학 실험 등 89개 수업에 1,33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는 공중보

건 등 9개 수업이 개설됐다. 개설된 수업은 22일부터 평일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진행되며, 학습 상황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기록된다. 최근이 중등교육과정은 "학교 연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과목을 이웃 학교와 함께 수업을 개설해 학생들이 진로를 자기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전북온라인학교, 학점인정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LX 공간정보연구원과 RISE 사업 협력

### 지역 경제발전과 연계된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20일 비전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간정보연구원(원장 곽희도)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비전대학교 우병훈 총장, 이근상 산학협력단장, LX 공간정보연구원 곽희도 원장, 정철식 연구기획실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혁신기관이 협력해 지역 주력산업에 맞춘 인재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과 연계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구개발(R&D) 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 발전 지원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 △지역 정주형 취·창업 지원체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우병훈 총장은 "우리 대학은 공간정보,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 DX 융합 기술을 연구하는 LX공사 공간정보연구원과 협력해 RISE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취업 역량 강화, 기업 지원 등 지속적인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희도 원장은 "전주비전대학교의 VISION EXPO에 매년 참가하며 대학의 혁신적인 활동을 지켜봐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간정보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주비전대 학생들이 국토교통기술대전 등 주요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DX 융합기술 분야의 실무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양현고, 전북대 영어영문학과와 영어 예비교사 파견 협약

교육부 지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운영학교인 양현고등학교(교장 이원형)는 지난 19일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영어 예비교사 파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는 글로벌(Global) 인재 양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영어 예비교사들이 실생활과 연계된 영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양현고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적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영어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